

# 대구·광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개최 유치전 돌입

**오늘 공동유치준비위 출범식**  
이용섭 광주시장 등 4명 공동위원장  
국회의원 등 위원들 100여명 동참  
2023년 심의 거쳐 2024년 확정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 유치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달구벌 대구와 빛고를 광주가 오랜기간 유지해 온 '달빛동맹'을 바탕으로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광주와 대구시가 15일 오후 3시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2038 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대회 유치를 위한 첫 여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광주와 대구의 한 마음을 싣고 나아가 위대한 비상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지역 국회의원과 체육계, 지역사회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 비전과 기본방

향을 공유하고 공동 유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한다는 뜻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동유치준비위는 이용섭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전 광주생활체

육협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최상준 남화도건 회장, 박영기 대구시체육회 회장 등 4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의회, 기초자치단체, 체육계, 교육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

양한 분야의 위원들 100명이 함께 한다.

위원들은 2038 하계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격 유치활동을 펼치게 된다. 광주·대구시민을 비롯해 국민적 지지를 확산시키고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는 등 유치 열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행사는 뮤지컬 갈라콘서트와 역동적이고 웅장한 대북공연으로 막을 연다.

행사의 백미인 유니언 퍼포먼스(Union performance)는 '양 도시 시민의 마음'을 합쳐진 하트로 표현했고, 참석자들은 '함께라서 할 수 있습니다!'를 슬로건으로 공동유치 성공을 기원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38 하계아시안게임 유치는 국가 위상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과 경

제 활성화, 스포츠인프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개최도시가 발표되는 2024년까지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달빛동맹으로 이어온 두 도시가 2038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나섬으로써 동서화합을 이루는 국가적 전기를 마련했다"며 "역량을 한데 모아 국제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과 브랜드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아시안게임 유치는 내년 대한체육회 심의를 통한 국내 후보도시 확정,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사전타당성조사와 심의를 거쳐 2024년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지실사 등을 통해 최종 개최도시가 확정된다.

/광주=김태우 기자 ktu3987@metroseoul.co.kr

## 온정나눔봉사단, 12년째 '사랑의 연탄' 배달

**광주 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 구성**  
어려운 이웃에 연탄·쌀·생필품 등 전달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온정나눔봉사단이 12년째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광주온정나눔봉사단은 지난 13일 광산구 운남동에서 연탄배달 봉사를 했다. 이날 봉사에는 광주 치평초, 전남중, 선창초, 운남동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20여 개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주민 7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차량 진입이 힘든 좁은 골목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 어르신 가정에 연탄을 700장을 배달했다.

올해 온정나눔봉사단은 1300만원을

모금했다. 매년 학생들은 용돈을 모아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부모들도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쾌척하고 있다.

치평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자체모금을 실시해 25만5400원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웃돕기 봉사 소식을 듣고 문영래 정형외과 병원과 월드교구산업, 승호전력, 진보전기, 더드림안과, 아름다운가게첨단점 운영위원회도 기부에 동참했다.

온정나눔봉사단은 생활이 어려운 20가구에 연탄 6000여 장과, 쌀 20kg들이 120포대, 생활필수품 등을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에 전달한다.

일부 쌀은 제주 4·3사건 유가족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다. 제주에 거주하는 교사와 주민들도 온정나눔봉사단에 8년째 기부금을 보내오고 있으며, 봉사단에서도 공권력에 희생된 5·18민주화운동과 4·3사건이라는 공통적인 아픔을 겪은 양 지역의 치유를 위해 4년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온정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 산월초등학교 유정종 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지만 회원들의 따뜻한 온정과 봉사를 더 늘었다"며 "한 장의 연탄에도 사랑을 담을 수 있다는 평범한 이웃사랑 정신을 광주의 불우이웃과 제주 4·3사건 피해 유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 뜻깊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우 기자 ts7080@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이 23일 오전 광주 북구 한 김치 제조 판매업소에서 김치 위생상태·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 전남, '국산김치 사용 표시제' 정착 올인

민간 감시단 운영, 활동비 지원

전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민간협업형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의 현장 관리를 위해 민간에서 감시단을 꾸려 제도 정착에 힘을 보태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한국부인회전남지부와 맺은 사후관리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오는 30일까지 국산김치 사용 표시제 민간감시단을 운영한다.

한국부인회전남지부가 감시단을 꾸려 현장을 점검하고, 전남도는 홍보와 행정지원을,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는 한국부인회 전남지부에 활동비를 지원한다.

감시단은 한국부인회 전남지부 산하 목포 등 21개 시·군 지회의 75명으로 구성했다. 점검 대상은 표시제 인증을 받은 도내 3185개 음식점이다. 이번 점검에서 학교, 공공기관은 제외했다.

국산김치 사용 표시제 인증 스티커 부착 여부, 원산지표시 내용 점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스티커 미부착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수입산 재료 사용을 적발하면 인증을 취소한다.

활동상황은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지난 9일 현재까지 점검대상 3185개소 중 23%인 750개소의 현장점검을 마쳤으나, 현재까지 부적합으로 취소된 사례는 없다. /전남=김태우 기자

## 경북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대회 장려상

'캐주얼 인사이트' 팀 수상



경북도가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경북도가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범정부 대회로 지난 11일 서울 슈퍼겐홀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 경북도는 '캐주얼 인사이트' 팀이 참가해 공공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수상작인 '데이터와, 간단하게 분석하고 공유하는 데이터 분석 웹서비스'는 초보자도 쉽게 업로드, 정제 및 분석과 시각화를 표출하는 빅데이터 다차원 데이터 분석 솔루션 및 웹서비스로, B2B·B2G·B2C 모델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대회 예선에는 32개 기관의 2072팀이 참가했으며 본선에서는 24개 팀이 선정돼 최종 왕중왕전에서 5팀이 겨뤘다.

수상팀은 창업 원스톱 프로그램과 성

## 세계유산 미디어 홍보관 경주 '살롱헤리티지' 개관

경북 경주시는 국내 첫 세계유산 미디어 홍보관 '살롱헤리티지'를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인 경주시는 오는 15일 개관식을 열고, 미디어디스플레이를 이용해 불국사와 석굴암, 첨성대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알린다.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국제행사기념관에 설치된 홍보관은 근대 유럽의 대화와 교류의 장이었던 '살롱'을 모티브로 기획됐다.

미디어 터널, 스크린, 세계유산 서재 등에 첨단 디지털 장비와 고전적 공간이 함께 구성됐다. 국내 최고사양의 LED 디스플레이를 도입한 길이 9.6m 높이 2.7m의 스크린도 설치됐다.

관람객들이 세계유산제도의 기원과 경주를 비롯한 세계유산도시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꾸몄다. 또 쿼츠를 통해 만나보는 세계유산여행과 아태지역사무처의 옥외전광판도 구축됐다.

/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경북=김홍기 기자

## 영양군노인복지관 '어르신 소방안전교육'

영양군노인복지관(이상록 관장)은 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에서 어르신과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소방서 영양119안전센터와 연계하여 소방안전 및 화재 대피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시 대피요령과 행동,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이 끝난 후 화재 사고 대피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양군노인복지관 직원 및 영양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의 안내에 따라 모

의대피훈련도 함께 실시되었다. 교육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실질적인 사고현장에서의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어 이번 소방교육이 참 좋았다는 평가를 남겼다.

영양군노인복지관 이상록 관장은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응급 및 위기상황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스스로 위기상황에 따른 대처법과 더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김태우 기자 ktu3987@